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60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시 : 1999년 4월 26일 (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05.4
한16현

GL00004607

300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

김주수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토론

최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종 (변호사)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일시 : 1999년 4월 26일 (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호주제도 연구회 창간

목 차

프 / 로 / 그 / 램

호주제도 / 김주수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 사회 :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 김주수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토론 최신희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중 (변호사)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 종합토론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 최신희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호주제 13
(1)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21
(2) 양성평등의 국제적 기준 21
(3) 가부장제의 가족법 23

목 차

주제발표

호주제도 / 김주수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1. 서론	7
2. 호주제도 유지를 위한 제 규정에 대한 비판	8
3.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10
4. 맺음	11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양성평등과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호주제	13
2. 호주제와 관련된 피해사례	14
(1) 사례 1 - 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문제	14
(2) 사례 2 -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문제	15
(3) 사례 3 - 이혼가정 자녀의 姓 문제	16
(4) 사례 4 -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17
3. 맺음말	18

토론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 최신헌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양성평등과 호주제	21
(1)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21
(2) 양성평등의 국제적 기준	21
(3) 가부장제적 가족법	23

2.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24
(1) 호주제 피해 및 불만 신고센터 설치	24
(2)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	24
(3) 헌법소원	24
(4)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의 진정	24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 김기중 (변호사)

1. 들어가며	27
2. 주민등록제도	27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27
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28
다. 주민등록	29
라. 주민등록번호	30
마. 주민등록증	30
바. 외국의 제도	31
사. 검토	31
2. 제안	32
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33
나. 대안	34

호주제 폐지 - '전통주의자'들의 허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1.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35
2. "남자는 씨, 여자는 밭, 남자가 씨를 생산하므로 '아들로 대 잇기'를 해야 한다"-???	36
3. 왜 위계질서에 집착하는가?	37
4. 남녀차별적이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논리 - 호주제	37
5.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38

호주제도

김 주 수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1. 서론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 즉 이른바 종법제를 그 기간(基幹)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년간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그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자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에 투철하다.

물론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그 근거가 되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봉건적 사회제도의 붕괴로 가장의 권력이 위축되어 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그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를 농촌에 간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봉건적 예속관계가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물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게 됨으로써 봉건적 예속관계는 약해졌다고 하지만, 가족원의 경제적 독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역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존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나 사회제도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대하여 전연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은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적(縱的)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기간(基